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귀중

2007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2007. 9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2-7층
전 화 : 02-3014-0083
팩스번호 : 02-3014-0775
홈페이지 : www.hrc.co.kr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4
1. 조사배경 및 목적	5
2. 조사설계	6
3. 조사내용	7
4. 응답자 구성	9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0
제 3 장. 조사결과	21
1.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22
1) 질병으로 인식 -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의 중요성	22
2) 질병으로 인식 -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24
3) 질병으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발병 가능성	26
4)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28
5)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정신 질환 약물치료 가능성	30
6)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32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1	34
8)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2	36
9)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3	38
10)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40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43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43

3.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45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45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 문제	47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49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51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53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55
7)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57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59
4.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61
1)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61
5.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63
1)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63
2)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	65
3)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	67
4)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69
5)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71
6)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72
7)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74
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76
1) 스트레스 체감 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76

7.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78
1)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무에 따른 위험군 분류	78
8.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79
1)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79
2)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추천 대상	81
3)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 여부	82
4)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83
5)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84
6)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받지 않는 이유	85
7) 가족 및 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권유 의향	86
9.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87
1)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87

부록. 조사결과표

조사설문지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구성

1. 조사배경 및 목적

-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1.4%로서 10당 3명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임. (200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 남자 38.7%, 여자 23.9%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많음.
 - 특히 우울증은 평생 한번 이상 앓을 가능성이 15%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병임.
 -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인의 평생유병율이 40%대인데 비해 한국인의 평생유병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정신질환자가 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안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2000년 통계와 비교할 때, 5년간 등록된 정신장애자의 수는 71,797명에서 2005년 59,223명으로 감소함.
 - 전체 장애인 등록률이 87.9%인데, 48.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
 - 특히 전년도 40.5%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수치임.
- 최근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정신질환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의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경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됨.
- 본 조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은 어떠한지 △정신질환 발병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추출	● 2006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기간	● 2007. 9. 11- 9. 17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	●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의 중요성 ●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 불특정인 대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발병 가능성 ●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약물치료 가능성 ●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 정신질환자의 친구/동료 수용 가능성 ●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투자 필요성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요청 상대	● 응답자 또는 가족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상대
스트레스 관련 실태	●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정도 ● 대인 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 ● 고민 상담자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 화와 같은 감정 조절 관련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동석자 없는 TV 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 기분 전환을 위한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구 분	내 용
정신건강 실태관련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던 경험 유무 ● 1주 이상 평상 시 하던 일에 귀찮은 느낌 경험 유무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경험 유무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은 경험 유무 ● 1주 이상 특별한 이유없이 잠을 못잔 경험 유무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험 유무
정신건강 문제 시 대응관련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인지 여부 ●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에게 상담이나 치료 경험 유무 및 유형 ●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의향
가족/친구의 정신건강 실태관련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했던 가족/친구 유무 ● 1주 이상 평상 시 하던 일을 귀찮게 느낀 가족/친구 유무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식사를 제대로 못한 가족/친구 유무 ●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은 가족/친구 유무 ● 1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못잔 가족/친구 유무 ●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가족/친구 유무

4. 응답자 구성

Base=전 체	사례수 (명)	%
■ 전 체 ■	(1000)	100.0
○ 성 별 ○		
○ 성 남	(499)	49.9
○ 성 여	(501)	50.0
○ 연 령 ○		
○ 10대 (15-19세)	(79)	7.9
○ 20대	(227)	22.7
○ 30대	(250)	25.0
○ 40대	(220)	22.0
○ 50대	(161)	16.1
○ 60대 (60-65세)	(63)	6.3
○ 거 주 지 역 ○		
○ 거 도 심 서 역	(169)	16.9
○ 도 록 부 지 역	(328)	32.8
○ 동 록 부 지 역	(345)	34.5
○ 상 록 부 지 역	(158)	15.8
○ 학 졸 이 령 ○		
○ 중 고 졸 이	(139)	13.9
○ 대 재 이	(269)	26.9
○ 대 재 이 상	(592)	59.2
○ 직 업 ○		
○ 사 무 / 관 리 / 전 문 직	(224)	22.4
○ 자 영 업	(85)	8.5
○ 영 업 / 판 매 / 서 비 스	(45)	4.5
○ 생 산 / 기 술 / 노 무 부 생 산	(124)	12.4
○ 무 직 / 퇴 직 / 기 타	(198)	19.8
○ 무 직 / 퇴 직 / 기 타	(221)	22.1
○ 무 직 / 퇴 직 / 기 타	(102)	10.2
○ 월 가 구 소 득 ○		
○ 99 만 이 하	(52)	5.2
○ 100 - 199 만 원	(104)	10.4
○ 200 - 299 만 원	(236)	23.6
○ 300 - 399 만 원	(204)	20.4
○ 400 - 499 만 원	(114)	11.4
○ 500 만 원 이 상	(179)	17.9
○ 모 립 / 무 응 답	(111)	11.1
○ 경 제 수 준 ○		
○ 경 제 상	(60)	6.0
○ 경 제 중 하	(751)	75.1
○ 경 제 하	(189)	18.9
○ 중 기 전 록 기 중 ○		
○ 중 기 전 록 기 중	(320)	32.0
○ 중 기 전 록 기 중	(122)	12.2
○ 중 기 전 록 기 중	(136)	13.6
○ 중 기 전 록 기 중	(15)	1.5
○ 중 기 전 록 기 중	(407)	40.7
○ 혼 인 상 태 ○		
○ 혼 인 기	(391)	39.1
○ 혼 인 기	(579)	57.6
○ 혼 인 기	(33)	3.3
○ 신 체 적 건 강 상 태 ○		
○ 신 체 적 건 강 상 태	(557)	55.7
○ 신 체 적 건 강 상 태	(354)	35.4
○ 신 체 적 건 강 상 태	(90)	9.0
○ 정 신 적 건 강 상 태 ○		
○ 정 신 적 건 강 상 태	(653)	65.3
○ 정 신 적 건 강 상 태	(306)	30.6
○ 정 신 적 건 강 상 태	(42)	4.2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2007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요약

- ◎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90% 내외가 신체적인 질병과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임.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말에 94.8%,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에 72.7%,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말에 92.6%가 그렇다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94.8	4.8	0.4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	72.7	27.3	0.0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	92.6	7.1	0.2	100.0

-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가능성에 대해서도 85% 내외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하지만, 약물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62.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84.2%,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에는 9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치료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하지만,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는 62.6%가 그

렇다고 응답하여 약물치료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84.2	13.5	2.3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62.6	30.9	6.4	100.0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93.0	6.0	1.0	100.0

-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80% 내외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의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함.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80.8%,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는 80.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모름/무응답	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80.8	18.9	0.3	100.0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정신질환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80.6	18.1	1.3	100.0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93.0	6.0	1.0	100.0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93.0%가 그렇다고 응답함.

◎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는 정신과 의사, 그 외의 가족 구성원, 심리상담사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37.9%가 정신과 의사라고 응답하였으며, 22.6%가 그 외의 가족 구성원, 19.3%가 심리상담 전문가(심리상담사)라고 응답함.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신과 의사	(349)	37.9
그 외의 가족 구성원	(226)	22.6
심리 상담사	(193)	19.3
그 사람의 친구	(63)	6.3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임.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 '고위험군'은 32.0%, '위험군'은 53.4%, '저위험군'은 10.7%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9)	3.9
고위험군	(320)	32.0
위험군	(534)	53.4
저위험군	(107)	10.7

◎ 4가지 스트레스 위험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음.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62.2%,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40.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

- 관계적 요인 중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31.6%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19.6%가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사회적 요인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62.2	37.7	0.1	100.0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40.5	59.3	0.2	100.0
관계적 요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31.6	68.4	0.0	100.0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19.6	80.3	0.1	100.0
스트레스 관리 요인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23.1	76.8	0.1	100.0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	27.2	72.8	0.0	100.0
스트레스 해소 요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13.6	86.3	0.1	100.0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18.4	81.5	0.1	100.0

- 스트레스 관리 요인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가 있다’에 23.8%,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스트레

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에 27.2%가 그렇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 해소 요인 중에서는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에 13.6%,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을 선호한다'에 18.4%가 그렇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유형에서 10% 내외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 이상임.

- 정신건강 리스크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중 5가지 이상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초위험군'은 1.4%, '고위험군'은 9.3%, '위험군'은 33.7%, 6가지 문항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5.7%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4)	1.4
고위험군	(93)	9.3
위험군	(337)	33.7
저위험군	(557)	55.7

◎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중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5.4%임

- '위험군' 이상의 응답자 453명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8(26.0%)명임.
- '위험군' 이상의 응답자 453명 중 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2(24.8%)명임.

(단위 :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으십니까?	26.0	74.0	100.0
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8	75.2	100.0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5.4	94.6	100.0

- 특히,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 112명 중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명 (5.4%)에 불과함.

- 현재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6명 중 3명은 상담치료 없이 약물치료만, 3명은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 50.8%가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않음.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106명 중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7명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53)	50.8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16)	14.6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15)	13.7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7)	6.6
기타	(15)	14.4
합계	(106)	100.0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 106명 중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1명(76.0%)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의향은 높은 수준임.

◎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모두 위험군이거나 어느 한쪽이 저 위험군인 B유형이 51.5%로 가장 많음.

문3)과 문4)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위험군(43p 참조)과 정신건강 위험군(62p 참조)을 교차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정신건강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스트레스	저위험군	A 유형	B 유형	해당자 없음	
	위험군			E 유형	F 유형
	고위험군	C 유형	D 유형		
	초고위험군				

* C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저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9%임
 * E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8%임
 * F 유형 중 스트레스 위험군-정신건강 초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3%임

구분	사례수(명)	비율(%)
A 유형	(92)	9.2
B 유형	(515)	51.5
C 유형	(118)	11.8
D 유형	(158)	15.8
E 유형	(92)	9.2
F 유형	(23)	2.3

◎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위험한 초위험군은 4.1%임.

-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문항 중 5가지 이상 그렇다고 응답한 '초위험군'은 4.1%이며, 6가지 문항 모두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5.5%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100)
초고위험군	(41)	4.1
고위험군	(196)	19.6
위험군	(208)	20.8
저위험군	(555)	55.5

◎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70% 중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24.7%임.

- 가족 및 지인의 정신건강이 '위험군' 이상인 응답자 498명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유한 응답자는 181명(36.3%)임.

(단위 :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무응답	계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그런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였던 경우가 있나요?	36.3	63.7	0.0	100.0
그런 상태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0	28.6	01.4	100.0
그 분은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24.7	68.0	7.3	100.0

* 그런 상태란 문6.의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평가 문항임.

* '위험군'은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평가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1개 또는 2개임.

- 가족 및 지인의 정신건강이 '위험군' 이상인 응답자 498명 중 가족 및 지인들에게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49명(70.0%)임.
- 가족 및 지인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349명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86명(24.7%)임.
- 가족 및 지인들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86명 중 상담치료는 12명, 약물치료는 14명,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는 58명임.(모름/무응답 2명)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 42.5%가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않음.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237명 중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12명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101)	42.8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31)	12.7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27)	11.4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27)	11.4
기타	(39)	16.5
모름/무응답	(12)	5.2
합계	(237)	100.0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 237명 중 205명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인지여부는 10% 이내임.

-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에 불과함.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알고 있다	(88)	8.8
모르고 있다	(912)	91.2
합계	(1000)	100.0

제 3 장 조사결과

1.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3.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4.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5.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7.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8. 가족 및 지인들의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9.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1.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1) 질병으로 인식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의 중요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705)	70.5
대체로 그런 편이다	(243)	24.3
별로 그렇지 않다	(36)	3.6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모름/무응답	(4)	0.4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말에 대해, 70.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4.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병만큼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30대(97.9%) △월가구소득 400-499만원(97.5%)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이다(9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9.6%) △경제수준 하(7.9%) △신체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편이다(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 신체 건강대비 정신 건강 중요성

	사제 성 (성)	연령 (세)	교육 수준 (년)	연소득 (만원)	경제 수준	신체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	응답률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여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연령별								
10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20대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30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40대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50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연소득별								
99만원 이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199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200-299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300-399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400-499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500만원 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경제수준별								
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중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상	700	700	700	700	700	700	700	100.0
신체건강상태별								
매우 좋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좋음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0
보통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나쁨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00.0
매우 나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질병으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3〉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94)	29.4
대체로 그런 편이다	(433)	43.3
별로 그렇지 않다	(206)	20.6
전혀 그렇지 않다	(67)	6.7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에 대해, 29.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2.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④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기사나 뉴스에 관심이 간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상이 좋지 않을 수록 높고, △여자(81.5%) △50대(81.6%) △고졸(81.0%) △학생(87.5%) △기혼자(80.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을 수록 높고, △남성(36.1%) △10대(55.7%) △중졸이하(34.2%) △주부(46.4%) △미혼자(4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 정신 질환에 관한 기사나 뉴스 관심도

		신체적·정신적 건상		신체적·정신적 건상		신체적·정신적 건상		신체적·정신적 건상		신체적·정신적 건상	
응답자 특성		응답 수 (n)	응답률 (%)	응답 수 (n)	응답률 (%)	응답 수 (n)	응답률 (%)	응답 수 (n)	응답률 (%)	응답 수 (n)	응답률 (%)
성별	전체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성별	남성	(499)	49.9	121	24.2	378	75.8	121	24.2	378	75.8
	여성	(501)	50.1	136	27.1	365	72.9	136	27.1	365	72.9
	10대	(115)	11.5	34	29.6	81	70.4	34	29.6	81	70.4
	2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3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4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5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6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7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80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성별	초·중·고	(1,000)	100.0	257	25.7	743	74.3	257	25.7	743	74.3
	초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중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고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대	(222)	22.2	68	30.6	154	69.4	68	30.6	154	69.4

3) 질병으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5〉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59)	65.9
대체로 그런 편이다	(267)	26.7
별로 그렇지 않다	(59)	5.9
전혀 그렇지 않다	(12)	1.2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65.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2.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불교(10.4%)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1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illegible]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7〉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78)	47.8
대체로 그런 편이다	(364)	36.4
별로 그렇지 않다	(116)	11.6
전혀 그렇지 않다	(19)	1.9
모름/무응답	(23)	2.3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신체적인 질환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대해, 47.8%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4%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 〈표8〉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 완치 가능성

[illegible]

II

5) 치료가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9〉 신체 질환대비 정신 질환의 약물치료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08)	30.8
대체로 그런 편이다	(318)	31.8
별로 그렇지 않다	(240)	24.0
전혀 그렇지 않다	(69)	6.9
모름/무응답	(64)	6.4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처럼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30.8%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62.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0.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6) 치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1〉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76)	57.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54)	35.4
별로 그렇지 않다	(52)	5.2
전혀 그렇지 않다	(8)	0.8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57.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3.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도심/서북 거주자(95.3%) △월가구소득 200-299만원(95.4%) △천주교(9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강남3구 거주자(9.0%) △영업/판매/서비스업자(9.3%)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10.0%) 및 100-199만원(1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2〉 정신 질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지역구 (명)	성 비율 (%)	연령 구분 (명)	연령 비율 (%)	성별 비율 (명)	성별 비율 (%)	종교 비율 (명)	종교 비율 (%)	소득 비율 (명)	소득 비율 (%)	직업 비율 (명)	직업 비율 (%)	건강 비율 (명)	건강 비율 (%)	합계 비율 (명)	합계 비율 (%)
전체	11,000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000	100.0
성별																
남	5,500	50.0	250	25.0	125	5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500	50.0
여	5,500	50.0	250	25.0	125	5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500	50.0
연령																
1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2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3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4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5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6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7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8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9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종교																
천주교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기독교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불교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기타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소득																
99만원이하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199만원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200-299만원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300만원이상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직업																
영업/판매/서비스업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제조업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서비스업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학업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무직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건강																
정신적 건강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신체적 건강	1,000	100.0	100	100.0	5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	100.0	1,000	100.0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1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3〉 정신질환자의 친구/동료 수용 가능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76)	37.6
대체로 그런 편이다	(432)	43.2
별로 그렇지 않다	(162)	16.2
전혀 그렇지 않다	(27)	2.7
모름/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전 체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친구,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37.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8.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 수록 높고, △50대(24.1%) △학생(21.8%) △월가구소득 400-499만원(21.8%) △경제수준 하(2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8)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2

-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5〉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22)	42.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84)	38.4
별로 그렇지 않다	(141)	14.1
전혀 그렇지 않다	(40)	4.0
모름/무응답	(13)	1.3
합계	(1000)	100.0

전 체

- ‘내가 사는 지역에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42.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8.4%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0.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8.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40대(85.1%) △영업/판매/서비스업자(88.6%) 및 생산/기술/노무자(84.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30대(21.3%) △학생(2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6〉 거주지 정신보건 재활시설 수용 여부

		연령 (세)									
		전체 (명)	남자 (명)	여성 (명)	중·고등학생 (명)	대학생 (명)	일반직 (명)	영업·판매·서비스 (명)	생산·기술·노무 (명)	사무·관리 (명)	주부 (명)
연령	성별	(명)									
10대 (15~19세)	전체	1,781	880	9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0대	전체	2,771	1,385	1,386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0대	전체	1,561	780	78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0대	전체	1,221	610	61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50대	전체	1,161	580	58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6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7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8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9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0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1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2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3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4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5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6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7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8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19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0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1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2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3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4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5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6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7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8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29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0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1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2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3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4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5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6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7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8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39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0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1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2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3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4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5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6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7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8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49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500대	전체	1,001	500	501	15.2	15.2	15.2	15.2	15.2	15.2	15.2

9)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3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

문)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7〉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투자 필요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74)	67.4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6)	25.6
별로 그렇지 않다	(50)	5.0
전혀 그렇지 않다	(10)	1.0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 체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대해, 67.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3.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한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40대(96.4%) △자영업자(9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20대(10.5%) △주부(1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8〉 지역단위에서 정신 질환 치료 및 관리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

2022 年									
4 月 1 日		5 月 1 日	6 月 1 日	7 月 1 日	8 月 1 日	9 月 1 日	10 月 1 日	11 月 1 日	12 月 1 日
10000	10000	67.4	76.6	93.0	5.0	1.0	6.0	1.0	100.0
10100 (10100, 10100)	1791	55.6	36.6	92.5	1.5	0.0	7.5	0.0	100.0
	2721	64.6	20.0	91.5	0.5	0.0	10.0	0.0	100.0
	2860	66.0	19.0	91.5	0.5	0.0	10.0	0.0	100.0
	2860	66.0	19.0	91.5	0.5	0.0	10.0	0.0	100.0
	1431	74.6	10.0	92.5	1.0	1.0	1.0	1.0	100.0
10600 (10600, 10600)	1431	74.6	10.0	92.5	1.0	1.0	1.0	1.0	100.0
	2761	70.6	23.7	94.5	4.4	1.3	9.3	0.4	100.0
	1854	70.6	23.7	94.5	4.4	1.3	9.3	0.4	100.0
	1854	70.6	23.7	94.5	4.4	1.3	9.3	0.4	100.0
	14741	69.3	72.0	92.2	0.7	1.0	1.3	1.6	100.0
11100 (11100, 11100)	14741	69.3	72.0	92.2	0.7	1.0	1.3	1.6	100.0
	14741	69.3	72.0	92.2	0.7	1.0	1.3	1.6	100.0
	14741	69.3	72.0	92.2	0.7	1.0	1.3	1.6	100.0
	14032	70.1	70.6	90.5	0.5	1.0	0.0	2.7	100.0
	14032	70.1	70.6	90.5	0.5	1.0	0.0	2.7	100.0
11500 (11500, 11500)	2891	58.3	32.1	91.0	1.6	1.3	8.0	0.7	100.0
	2891	58.3	32.1	91.0	1.6	1.3	8.0	0.7	100.0
	1372	76.6	15.5	91.7	2.0	0.0	2.0	1.6	100.0
	1551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551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1900 (11900, 11900)	1551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2400 (12400, 124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2900 (12900, 129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3400 (13400, 134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032	60.3	29.0	91.4	0.5	0.0	1.0	0.0	100.0

10)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대상자

문) 만일 당신이나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겠습니까?

〈표19〉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신과 의사	(379)	37.9
그 외의 가족 구성원	(226)	22.6
심리상담 전문가(심리 상담사)	(193)	19.3
그 사람의 친구	(63)	6.3
지역사회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43)	4.3
성직자	(38)	3.8
약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의료인	(11)	1.1
그 사람의 동료	(10)	1.0
선생님	(5)	0.5
모름/무응답	(6)	0.6
합계	(1000)	100.0

전 체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대해, 37.9%가 ‘정신과 의사’라고 응답하였으며, 22.6%가 ‘그 외의 가족 구성원’, 19.3%가 ‘심리상담 전문가(심리 상담사)’라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명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라는 말에 정신과 의사라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40대(47.5%) △생산/기술/노무자(43.6%) △월가구소득 400-499만원(47.4%)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4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응답은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10대(30.8%) △주부(2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심리상담 전문가(심리상담사)라는 응답은 △10대(24.6%) △주부(25.8%) △월가구소득 500만원이상(23.9%)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2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0〉 정신질환 발병 시 도움 요청 대상자

		(단위: %)													
지역구 (구)	성 별	연령 대	교육 수준	직업 유형	주요 발병 원인	1차 발병 후 처치 유형	2차 발병 후 처치 유형	3차 발병 후 처치 유형	4차 발병 후 처치 유형	5차 발병 후 처치 유형	6차 발병 후 처치 유형	7차 발병 후 처치 유형	8차 발병 후 처치 유형	9차 발병 후 처치 유형	10차 발병 후 처치 유형
전체															
남	성	100.0	27.3	77.4	19.3	6.9	9.4	2.6	1.1	1.6	0.6	0.5			
여	성	100.0	21.0	77.4	14.6	7.3	1.7	2.7	0.6	0.6	0.6	0.6			
연령															
1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20대	성	100.0	29.7	77.3	24.1	10.9	2.5	1.6	1.3	0.9	0.4	0.4	0.0		
3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4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5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6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70대	성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교육수준															
초	학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중	학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고	학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대	학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직업유형															
주	무직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부	직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주	무직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부	직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발병원인															
1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2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3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4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5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6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7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8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9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10차	발병	100.0	10.0	70.0	20.0	10.0	1.0	1.0	0.0	0.0	0.0	0.0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위험군 분류 방법

문3-1번부터 문3-8번까지의 응답 중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 또는 1개는 ‘저위험군’으로, 2개 또는 3개는 ‘위험군’으로, 4개 또는 5개는 ‘고위험군’으로, 6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함.

*단 문3-6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정말 그렇다’로 변환하여 분류함.

〈표2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9)	3.9
고위험군	(320)	32.0
위험군	(534)	53.4
저위험군	(107)	10.7
합계	(1000)	100.0

문3-1번: 직장,가정,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3-2번: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문3-3번: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재미있다

문3-4번: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문3-5번: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문3-6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문3-7번: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문3-8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전 체

● 스트레스로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9%임.

● 그 밖에 고위험군 32.0%, 위험군 53.4%, 저위험군 10.7%로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위험군과 저위험군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표22〉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단위: %]				
		사 계 수 (명)	초 고 위 험 군	고 위 험 군	위 험 군	저 위 험 군
		(1000)	3.9	32.0	53.4	10.7
		100.0	100.0	100.0	100.0	100.0
성	남	(505)	5.5	30.7	54.4	9.4
	여	(505)	2.7	33.3	52.1	11.9
	비교	(75)	1.2	24.0	61.5	12.6
	비교	(75)	1.3	29.7	55.4	13.6
	비교	(75)	1.7	35.8	55.4	7.8
연령	10대	(205)	6.3	33.8	52.8	11.2
	20대	(205)	2.6	30.7	44.4	19.3
	30대	(205)	7.8	35.6	46.8	10.0
	40대	(205)	2.9	32.2	51.2	13.7
	50대	(205)	2.9	32.2	51.2	13.7
직업	주요직업	(105)	7.1	28.7	48.7	15.5
	부수직업	(105)	1.5	29.3	58.9	10.3
	비교	(105)	2.7	27.7	55.3	14.3
	비교	(105)	2.7	27.7	55.3	14.3
	비교	(105)	2.7	27.7	55.3	14.3
교육수준	초·중·고	(205)	2.9	32.2	51.2	13.7
	대·석·박	(205)	2.9	32.2	51.2	13.7
	비교	(205)	2.9	32.2	51.2	13.7
	비교	(205)	2.9	32.2	51.2	13.7
	비교	(205)	2.9	32.2	51.2	13.7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105)	2.9	32.2	51.2	13.7
	100만원 이상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건강상태	건강	(105)	2.9	32.2	51.2	13.7
	비건강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비교	(105)	2.9	32.2	51.2	13.7
정신건강	정신건강	(105)	2.9	32.2	51.2	13.7
	정신건강	(105)	2.9	32.2	51.2	13.7
	정신건강	(105)	2.9	32.2	51.2	13.7
	정신건강	(105)	2.9	32.2	51.2	13.7
	정신건강	(105)	2.9	32.2	51.2	13.7

3.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3〉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15)	21.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07)	40.7
별로 그렇지 않다	(310)	31.0
전혀 그렇지 않다	(67)	6.7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21.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0.7%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62.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20대(41.1%) 및 60대(48.3%) △월가구소득 300-399만원(4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6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5〉 경제적인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125)	12.5
대체로 그런 편이다	(280)	28.0
별로 그렇지 않다	(398)	39.8
전혀 그렇지 않다	(195)	19.5
모름/무응답	(2)	0.9
합계	(1000)	100.0

전 체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2.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8.0%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40.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43.1%) △도심/서북 거주자(46.1%) △고졸(5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여자(61.9%) △강남3구(65.7%) △대재 이상(6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6〉 경제적인 문제

		(단위: %)										모평균	표준편차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연령	지역	교육	소득	건강	스트레스	경제		
성별	성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연령	19~2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지역	도심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교육	고졸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소득	1000 이하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건강	건강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스트레스	스트레스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경제	경제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27〉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4)	6.4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2)	25.2
별로 그렇지 않다	(455)	45.5
전혀 그렇지 않다	(229)	22.9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6.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5.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31.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8.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50대(36.1%) △고졸(34.8%) △월가구소득 100-199만원(41.7%) 및 200-299만원(3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79.2%) △중졸이하(7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8〉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단위: %]					
시·도별		응답자 수 (N)	성별	연령	교육	소득	건강
			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
전국	전체	(278)	3.8	17.2	22.3	30.5	28.2
	남	(127)	4.4	24.8	22.2	28.5	24.1
	여	(151)	3.0	10.0	22.5	32.5	32.3
	10대	(150)	7.3	21.3	27.3	34.0	29.1
	20대	(128)	10.2	28.2	25.0	30.5	25.0
서울	전체	(151)	6.6	28.2	28.1	30.4	25.5
	남	(68)	7.5	35.3	28.1	30.4	25.5
	여	(83)	5.7	21.0	28.1	30.4	25.5
	10대	(80)	11.3	35.0	28.1	30.4	25.5
	20대	(71)	6.1	21.0	28.1	30.4	25.5
부산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대구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대전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충청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전라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경상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제주	전체	(100)	7.0	28.0	28.0	30.0	25.0
	남	(45)	7.8	35.6	28.0	30.0	25.0
	여	(55)	6.2	20.0	28.0	30.0	25.0
	10대	(45)	11.1	35.6	28.0	30.0	25.0
	20대	(55)	6.2	20.0	28.0	30.0	25.0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표29〉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64)	6.4
대체로 그런 편이다	(132)	13.2
별로 그렇지 않다	(324)	32.4
전혀 그렇지 않다	(479)	47.9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6.4%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2%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9.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0.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심각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50대(34.1%) △영업/판매/서비스업자(28.8%) 및 생산/기술/노무자(2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91.6%) △사무/관리/전문직(86.4%) 및 주부(8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0〉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구분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소득	건강	스트레스	상담자 부재 문제	주요 문제	비고
전체	남성	10대	초·중·고	학생	100.0	100.0	100.0	91.6	하루하루	100.0
		2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3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4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전체	여성	10대	초·중·고	학생	100.0	100.0	100.0	91.6	하루하루	100.0
		2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3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40대	대·석·박	사무·관리·전문직	100.0	100.0	100.0	86.4	하루하루	100.0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표31〉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6)	3.6
대체로 그런 편이다	(195)	19.5
별로 그렇지 않다	(374)	37.4
전혀 그렇지 않다	(394)	39.4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3.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5%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3.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6.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60대(86.1%) △대재 이상(80.1%) △영업/판매/서비스(8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표33〉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312)	31.2
대체로 그런 편이다	(416)	41.6
별로 그렇지 않다	(231)	23.1
전혀 그렇지 않다	(41)	4.1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 체

-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31.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1.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2.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스트레스 저위험군(9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경제수준 하(3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4〉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단위: %]

	시각수(명)	0 완전 없다	1 매우 적당	2 적당 하다	3 적당 하다	4 적당 하다	5 적당 하다	6 적당 하다	7 적당 하다	8 적당 하다	9 적당 하다	10 적당 하다	계
전체	(1000)	31.2	41.6	72.8	23.1	4.1	27.2	100.0					
성별													
남	(519)	35.4	33.8	69.2	23.6	7.2	30.8	100.0					
여	(480)	33.8	39.2	72.8	24.1	3.9	27.1	100.0					
연령													
19~29	(592)	29.1	44.5	73.5	22.6	3.9	26.3	100.0					
30~39	(400)	41.2	40.9	82.1	13.1	4.8	17.9	100.0					
40~49	(751)	33.0	43.0	73.0	23.7	3.3	27.0	100.0					
50~	(158)	33.0	35.9	68.9	24.1	6.9	31.1	100.0					
경제수준													
상	(39)	18.4	26.5	44.9	39.6	15.5	55.1	100.0					
중	(320)	13.5	44.8	58.3	36.4	5.3	41.7	100.0					
하	(554)	32.9	45.9	78.8	17.9	3.3	21.2	100.0					
매우	(102)	80.6	19.8	96.3	3.7	0.0	3.7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상	(567)	38.1	42.9	81.0	15.0	3.9	19.0	100.0					
보통	(354)	29.3	41.6	64.0	32.0	3.1	35.1	100.0					
하	(90)	19.6	33.1	52.8	38.4	8.8	47.8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상	(553)	38.0	42.3	80.3	16.7	3.1	19.7	100.0					
보통	(309)	29.1	41.6	61.7	33.7	4.6	38.3	100.0					
하	(142)	7.1	29.3	36.4	46.8	16.8	63.6	100.0					

기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35〉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0)	4.0
대체로 그런 편이다	(96)	9.6
별로 그렇지 않다	(244)	24.4
전혀 그렇지 않다	(619)	61.9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에 대해, 4.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19.7%) △영업/판매/서비스(24.4%) 및 생산/기술/노무자(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여자(92.3%) △사무/관리/전문직(89.7%) 및 학생(9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6〉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비율 (%)	표준 오차 (%)	95% CI (%)	비율 (%)	표준 오차 (%)	95% CI (%)	비율 (%)	표준 오차 (%)	95% CI (%)
성별									
남	19.7	1.5	16.8-22.6	24.4	1.5	21.4-27.4	25.3	1.5	22.3-28.3
여	92.3	0.5	91.3-93.3	89.7	0.5	88.7-90.7	92.6	0.5	91.6-93.6
연령									
10대	1.2	0.2	0.8-1.6	2.1	0.2	1.7-2.5	3.5	0.2	3.1-3.9
20대	3.1	0.3	2.5-3.7	4.2	0.3	3.6-4.8	5.8	0.3	5.2-6.4
30대	4.9	0.4	4.1-5.7	6.1	0.4	5.3-6.9	7.9	0.4	7.1-8.7
40대	6.2	0.5	5.2-7.2	7.5	0.5	6.5-8.5	9.1	0.5	8.1-10.1
50대	7.8	0.6	6.6-9.0	9.2	0.6	8.0-10.4	10.8	0.6	9.6-12.0
60대 이상	10.1	0.8	8.5-11.7	11.5	0.8	9.9-13.1	13.2	0.8	11.6-14.8
교육수준									
초·중·고	15.2	1.2	12.8-17.6	21.3	1.2	18.9-23.7	23.1	1.2	20.7-25.5
대·석·박	89.1	0.4	88.3-89.9	87.8	0.4	87.0-88.6	92.1	0.4	91.3-92.9
직업									
사무/관리/전문직	89.7	0.5	88.7-90.7	89.7	0.5	88.7-90.7	92.6	0.5	91.6-93.6
영업/판매/서비스	24.4	1.5	21.4-27.4	24.4	1.5	21.4-27.4	24.4	1.5	21.4-27.4
생산/기술/노무자	25.3	1.5	22.3-28.3	25.3	1.5	22.3-28.3	25.3	1.5	22.3-28.3
농·림·어업	1.2	0.2	0.8-1.6	1.2	0.2	0.8-1.6	1.2	0.2	0.8-1.6
학생	92.6	0.5	91.6-93.6	92.6	0.5	91.6-93.6	92.6	0.5	91.6-93.6
경제수준									
상위	1.2	0.2	0.8-1.6	1.2	0.2	0.8-1.6	1.2	0.2	0.8-1.6
중위	3.1	0.3	2.5-3.7	3.1	0.3	2.5-3.7	3.1	0.3	2.5-3.7
하위	15.2	1.2	12.8-17.6	15.2	1.2	12.8-17.6	15.2	1.2	12.8-17.6
스트레스									
적게 받음	1.2	0.2	0.8-1.6	1.2	0.2	0.8-1.6	1.2	0.2	0.8-1.6
많이 받음	18.5	1.4	15.7-21.3	18.5	1.4	15.7-21.3	18.5	1.4	15.7-21.3
신체적·정신적 건강									
좋음	1.2	0.2	0.8-1.6	1.2	0.2	0.8-1.6	1.2	0.2	0.8-1.6
나쁨	18.5	1.4	15.7-21.3	18.5	1.4	15.7-21.3	18.5	1.4	15.7-21.3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표37〉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6)	4.6
대체로 그런 편이다	(138)	13.8
별로 그렇지 않다	(452)	45.2
전혀 그렇지 않다	(363)	36.3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 체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대해, 4.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8.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아짐.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10대(8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8〉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illegible]

4. 정신건강 리스크 위험군 분류

1)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방법

문4-1번부터 문4-6번까지의 응답 중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는 ‘저위험군’으로, 1개 또는 2개는 ‘위험군’으로, 3개 또는 4개는 ‘고위험군’으로, 5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함.

〈표39〉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4)	1.4
고위험군	(93)	9.3
위험군	(337)	33.7
저위험군	(556)	55.7
합계	(1,000)	100.0

문4-1번: 1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가 있다

문4-2번: 1주일 이상 평소 하던 일이 귀찮게 느껴진 경우가 있다

문4-3번: 기분이 우울해서 1주일 이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4-4번: 기분이 우울해서 사람들과 1주일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있다

문4-5번: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다

문4-6번: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잔 경우가 있다

전 체

-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모두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저위험군은 54.7%이며, 5가지 이상의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초고위험군은 2.3%임.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초고위험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 할수록 응답비율이 높음.
- 정신건강 저위험군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음.

〈표40〉 정신건강 리스크 자가진단에 따른 위험군 분류

(단위 : %)

	사 계 수 (명)	초 고 위험 군	고 위험 군	위험 군	저 위험 군	계
전 세 계	(1000)	1.4	9.3	33.7	55.7	100.0
성 별						
남 자	(499)	1.1	6.5	34.4	58.0	100.0
여 자	(501)	1.8	12.9	33.0	52.3	100.0
연 령						
99 이하	(52)	4.0	15.4	30.0	50.6	100.0
100 - 199	(104)	1.0	11.5	37.7	49.8	100.0
200 - 299	(236)	0.9	8.5	39.1	51.5	100.0
300 - 399	(204)	0.4	7.0	27.2	65.3	100.0
400 - 499	(114)	1.0	9.3	37.8	51.9	100.0
500 이상	(179)	2.8	8.2	31.8	57.3	100.0
무응답	(111)	1.7	11.6	31.1	55.6	100.0
학 령 수 준						
상	(60)	1.6	11.2	21.6	65.5	100.0
중	(751)	1.5	8.9	33.2	56.5	100.0
미	(189)	1.1	10.1	39.5	49.3	100.0
스 트 레 스						
초 고 위험 군	(39)	13.1 ↑	21.0	37.0	29.0	100.0
고 위험 군	(523)	2.2 ↑	16.8	45.0	36.0	100.0
위험 군	(534)	0.4	5.7	30.6	63.3 ↓	100.0
저 위험 군	(187)	0.0	0.0	13.9	86.1	100.0
신 세 직 리 감 지 내						
충 분	(557)	0.7 ↓	6.9	29.4	63.0	100.0
충 분	(554)	0.9	10.6	40.0	48.5	100.0
충 분	(89)	7.8	18.7	35.2	38.4	100.0
정 신 적 리 감 지 내						
충 분	(653)	0.5 ↓	4.8	29.2	65.6	100.0
충 분	(306)	1.6	16.1	43.5	38.8	100.0
충 분	(42)	14.8 ↓	28.9 ↓	31.9	24.5	100.0

5.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1)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문5-1)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표41〉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있었다	(118)	26.0
없었다	(335)	74.0
합계	(453)	100.0

전 체

-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6.0%임.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말에 응답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높음.
- 응답자 스스로 판단할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38.6%만이 과거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42〉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및 상담 경험

		(단 위 : %)		
	사 례 수 (명)	있 었 다	없 었 다	계
전 세	(453)	26.0	74.0	100.0
성 별				
남 자	(212)	17.8	82.2	100.0
여 자	(240)	33.3	66.7	100.0
경 제 수 준				
상	(21)	37.6	62.4	100.0
중	(332)	28.2	71.8	100.0
하	(100)	16.2	83.8	100.0
스트레스				
저 위험군	(15)	6.6	93.4	100.0
위험군	(197)	25.7	74.3	100.0
고 위험군	(211)	27.6	72.4	100.0
초고 위험군	(30)	27.0	73.0	100.0
정신적 건강 상태				
좋은 편	(226)	23.5	76.5	100.0
보통	(190)	26.8	73.2	100.0
좋지 않은 편	(36)	27.5	72.5	100.0
본인 판단에 의한 정신질환 여부				
있 다	(112)	38.6	61.4	100.0
없 다	(340)	21.9	78.1	100.0

2)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

문5-2)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상담을 하셨습니까?

〈표43〉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복수응답)

구분	응답 비율 (%)
친구	61.8
가족	35.0
동료	14.7
정신과 의사	11.0
심리상담 전문가	10.1
선생님	4.1
성직자	2.6
의사(정신과 의사 제외)	2.4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사	0.8
모름/무응답	0.7
합계	143.0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 체

-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가족(35.0%), 동료(14.7%), 정신과 의사(11.0%) 등의 순임.
- 정신건강 문제로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이나 상담을 했다는 응답은 한번 밖에 없음.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으로 남녀 모두 친구, 가족, 동료라는 응답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고위험군의 경우 가족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많음.
- 응답자 스스로 판단할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친구, 가족 등과 같은 비전문인에게 과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함.

〈표44〉 정신건강관련 도움 및 상담 요청 대상(복수응답)

		[단위 : %]							
	사제수 (명)	친구	가족	동료	정신과 의사	참여상담 원고자	전환급/ 정적지/ 비정전계 의사	지역치위 정신보건관 련동자나 자립주거지	모금/ 무응답
총 계	(118)	61.8	35.0	14.7	11.0	10.1	9.2	0.8	0.7
성별									
남자	(38)	71.2	39.3	21.5	10.8	7.9	10.5	2.5	0.0
여자	(80)	57.4	32.9	11.4	11.0	11.1	8.5	0.9	1.1
연령 수준									
청	(8)	16.2	10.9	28.3	0.0	12.8	23.7	0.0	0.0
중	(94)	63.9	38.4	12.9	11.5	7.2	6.4	0.0	0.9
노	(16)	37.7	38.2	18.8	13.1	25.5	18.1	8.8	0.0
스트레스									
저위험군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위험군	(51)	74.2	30.0	16.2	3.9	9.7	11.6	0.0	1.7
고위험군	(58)	58.9	36.1	15.6	13.7	10.4	8.4	1.6	0.0
초고위험군	(8)	12.5	55.8	0.0	37.0	11.7	0.0	0.0	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53)	62.2	36.3	23.2	9.5	11.7	11.2	0.0	0.0
보통	(55)	65.5	32.5	9.1	10.7	7.9	8.9	1.7	1.6
좋지 않음	(10)	39.7	41.7	0.0	20.3	18.6	0.0	0.0	0.0
전문기관에 방문 정신질환 여부									
있다	(43)	53.1	33.2	8.8	13.8	13.7	6.7	2.2	2.0
없다	(74)	66.8	36.1	20.4	9.3	8.0	10.6	0.0	0.0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3)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문5-3] (문4번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45〉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112)	24.8
아니다	(341)	75.2
합계	(453)	100.0

전 체

- 본인 스스로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4.8%임.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현재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고, 여성(31.8%)이 남성(16.8%)보다 높음 .
- 응답자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72.1%만이 정신 질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표46〉 본인판단에 의한 정신 질환 유무

		(단위 : %)			
		사 례 수 (명)	그 령 디	아 니 디	계
성 별		(453)	24.8	75.2	100.0
남 자	남 자	(212)	16.9	83.1	100.0
	여 자	(240)	31.8	68.2	100.0
학 력	중 초 이 하	(62)	39.6	60.4	100.0
	고 초	(135)	25.7	74.3	100.0
	대 초 이 상	(256)	20.8	79.2	100.0
정 세 수 준	상	(21)	27.8	72.2	100.0
	중	(332)	21.4	78.6	100.0
	하	(100)	35.5	64.5	100.0
스 트 레 스	저 위	(15)	6.1	93.9	100.0
	중 위	(197)	15.9	84.1	100.0
	고 위	(211)	29.2	70.8	100.0
정 신 적 건 강 상 태	조 기 위	(30)	62.1	37.9	100.0
	조 기 위	(30)	62.1	37.9	100.0
	조 기 위	(30)	62.1	37.9	100.0
정 신 적 건 강 상 태	조 기 위	(209)	18.9	81.1	100.0
	조 기 위	(186)	22.8	77.2	100.0
	조 기 위	(58)	52.4	47.6	100.0
정 신 적 건 강 상 태	조 기 위	(226)	12.5	87.5	100.0
	조 기 위	(190)	30.4	69.6	100.0
	조 기 위	(36)	72.1	27.9	100.0

4)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문5-4] (본인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경우)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47〉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6)	5.4
아니다	(106)	94.6
합계	(112)	100.0

전 체

-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의사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5.4%임.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말에 응답비율은 남자(8.7%)가 여자(3.8%)보다 많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높음.
- ‘응답자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15.5%만이 의사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표48〉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단위 : %)			
		사 레 수 (명)	그 령 다	아 니 다	계
성 별		(112)	5.4	94.6	100.0
경 제 수 준	남 자	(36)	8.7	91.3	100.0
	여 자	(76)	3.8	96.2	100.0
스 트 레 스	상 중 하	(6)	0.0	100.0	100.0
		(71)	4.1	95.9	100.0
신 세 적 건 강 상 태	저 위 험 군	(1)	0.0	100.0	100.0
	중 위 험 군	(31)	0.0	100.0	100.0
	고 위 험 군	(62)	1.5	98.5	100.0
	초 고 위 험 군	(18)	27.5	72.5	100.0
정 신 적 건 강 상 태	좋은 편	(40)	4.9	95.1	100.0
	보 통	(42)	0.0	100.0	100.0
	좋지 않은 편	(31)	13.4	86.6	100.0
정 신 적 건 강 상 태	좋은 편	(28)	3.6	96.4	100.0
	보 통	(58)	1.6	98.4	100.0
	좋지 않은 편	(26)	15.5	84.5	100.0

5)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문5-5)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전문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49〉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약물치료	(3)	50.7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3)	49.3
합계	(6)	100.0

* 현재 상담치료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음.

전 체

- 정신건강 문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0.7%이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임.

6)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문5-6]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50〉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53)	50.8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16)	14.6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15)	13.7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7)	6.6
기타	(15)	14.4
합계	(106)	100.0

전 체

- 응답자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6.6%임.

응답자 특성별

- ④ ‘응답자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수록 높음.

-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남성(12.6%) △10대(19.8%) △경제수준 상(16.8%) 등에서 높음.

〈표51〉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시행수 (명)	서로 알모심 못 느낌	서로 관심 부라지	서로 병을 완전 명분	주변 시선에 부담	계
전체		(106)	59.8	14.6	13.7	6.6	14.4
성별	남자	(33)	57.3	9.4	11.7	12.6	9.0
	여자	(74)	47.9	16.9	14.5	4.9	16.8
연령대	10대 (15~19세)	(19)	30.2	19.9	10.3	19.8	19.8
	20대	(29)	64.9	15.1	5.1	4.9	10.0
	30대	(31)	50.1	10.5	12.3	6.7	20.4
	40대	(18)	49.4	16.6	22.7	6.1	5.3
	50대	(17)	56.8	5.9	5.9	5.8	23.7
경제수준		(11)	34.3	31.3	34.3	0.0	0.0
신체 상태	상	(6)	83.2	0.0	0.0	16.8	0.0
	중	(68)	54.5	13.3	9.9	5.9	16.4
스트레스	적	(32)	37.1	19.7	24.1	6.5	12.6
	중	(74)	57.3	16.9	14.5	4.9	16.8
정신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양호	(1)	100.0	0.0	0.0	0.0	0.0
	정신건강 양호	(31)	68.2	6.5	8.5	0.0	16.7
	정신건강 양호	(61)	45.3	15.3	13.1	10.0	12.3
	정신건강 양호	(13)	31.6	17.2	29.0	7.5	14.8
정신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양호	(38)	56.0	19.2	5.6	5.3	13.9
	정신건강 양호	(42)	54.4	12.6	8.8	7.1	17.1
	정신건강 양호	(26)	37.4	11.1	30.0	7.7	19.7
정신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양호	(27)	69.5	7.1	8.9	7.4	8.1
	정신건강 양호	(57)	52.7	14.9	9.7	3.4	19.2
	정신건강 양호	(22)	22.7	22.9	30.7	14.1	9.7

7)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문5-7)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표52〉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받을 의향이 있다	(81)	76.0
받을 의향이 없다	(23)	22.1
잘 모르겠다	(2)	1.9
합계	(106)	100.0

전 체

- 본인이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에 향후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6.0%임.

응답자 특성별

- ‘현재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향후 치료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연령(10대 제외)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짐.
-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44%가 향후 치료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표53〉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받을 의향

	사 례 수 (명)	의 향 있 다	의 향 없 다	모름 / 무응답	계
배 선 제 별	(106)	76.0	22.1	1.9	100.0
성 별					
남 자	(33)	72.8	24.2	3.0	100.0
여 자	(74)	77.4	21.2	1.4	100.0
연 령 대					
10대 (15-19세)	(10)	80.2	19.8	0.0	100.0
20대	(20)	85.0	15.0	0.0	100.0
30대	(31)	74.0	26.0	0.0	100.0
40대	(18)	78.8	15.8	5.4	100.0
50대	(17)	70.5	23.7	5.9	100.0
60대 (60-65세)	(11)	65.7	34.3	0.0	100.0
경 제 수 준					
상	(6)	50.4	32.8	16.8	100.0
중	(68)	73.8	26.2	0.0	100.0
하	(32)	85.1	11.7	3.2	100.0
스트레스					
저 위험군	(1)	0.0	100.0	0.0	100.0
위험군	(31)	77.3	19.4	3.3	100.0
고 위험군	(61)	76.0	22.4	1.6	100.0
초고 위험군	(13)	77.9	22.1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38)	81.4	16.1	2.6	100.0
보통	(42)	83.7	13.9	2.4	100.0
좋지 않은 편	(26)	56.0	44.0	0.0	100.0

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1) 스트레스 체감 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문3)과 문4)의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위험군(43p 참조)과 정신건강 위험군(61p 참조)을 교차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구분		정신건강			
		저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스트레스	저위험군	A 유형	B 유형	해당자 없음	
	위험군	B 유형		E 유형	F 유형
	고위험군	C 유형	D 유형		
	초고위험군				

* C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저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9%임

* E 유형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정신건강 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8%임

* F 유형 중 스트레스 위험군-정신건강 초고위험군 해당자는 전체 중 0.3%임

〈표54〉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구분	사례수(명)	비율(%)
A 유형	(92)	9.2
B 유형	(515)	51.5
C 유형	(118)	11.8
D 유형	(158)	15.8
E 유형	(92)	9.2
F 유형	(23)	2.3
합계	(1,000)	100.0

전 체

-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모두 위험군이거나 어느 한쪽이 저위험군인 B 유형이 51.5%로 가장 많음.

응답자 특성별

-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모두 저위험군에 속하는 A 유형의 응답자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많고, B 유형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많고, C 유형은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고, E 유형은 자영업이나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에서 더 많음.
- 현재 본인이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340명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는 E와 F 유형의 응답자는 각각 13.6%와 2.4%로 16%에 달함.

〈표55〉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단위 : %)					
응답자 특성		사 계 수 (명)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F 유형
성 별		(1000)	9.2	51.5	11.8	10.8	9.2
연 령		(499)	7.8	54.2 ↑	13.4	16.8	6.5
연 령		(501)	10.8	45.3	10.3	10.1	11.9
연 령		(79)	10.0	59.1	6.2	10.9	12.5
연 령		(222)	7.9	56.7	8.5	14.4	12.2
연 령		(250)	7.3	51.7	13.2	17.3	8.5
연 령		(220)	10.9	50.3	13.3	16.9	5.9
연 령		(181)	10.1	43.7	17.0	17.8	9.5
연 령		(83)	12.0	47.1	14.2	12.8	8.7
연 령		(80)	14.8	82.8	8.7	0.0	11.2
연 령		(781)	9.2	53.8	11.3	14.9	8.5
연 령		(189)	7.2	40.0	14.8	24.5	10.1
연 령		(224)	8.0	53.8	14.2	16.7	5.2
연 령		(83)	8.8	49.3	14.0	17.8	7.0
연 령		(124)	8.2	45.4	15.9	18.5	9.8
연 령		(186)	10.0	60.2	4.0	17.3	2.0
연 령		(85)	5.9	42.9	19.1	22.9	0.0
연 령		(221)	10.2	51.8	10.2	12.8	10.2
연 령		(102)	8.5	44.5	14.4	19.3	10.4
연 령		(220)	11.1	53.8	10.8	14.9	2.0
연 령		(122)	5.0	57.3	12.4	14.7	8.8
연 령		(136)	10.6	47.8	14.2	14.5	10.8
연 령		(15)	6.9	46.4	7.0	12.5	13.4
연 령		(407)	8.8	49.7	11.8	17.5	10.2
연 령		(112)	0.0	15.3	0.0	30.0	41.0
연 령		(345)	0.0	47.3	0.0	36.8	13.6 ↑

7.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1)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무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정신건강 위험군 분류 방법

문6-1번부터 문6-6번까지의 응답 중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는 ‘저위험군’으로, 1개 또는 2개는 ‘위험군’으로, 3개 또는 4개는 ‘고위험군’으로, 5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함.

〈표56〉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무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41)	4.1
고위험군	(196)	19.6
위험군	(208)	20.8
저고위험군	(555)	55.5
합계	(1,000)	100.0

문6-1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1주 이상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가 있다
 문6-2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1주 이상 평소 하던 일이 귀찮게 느껴진 경우가 있다
 문6-3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기분이 우울해서 1주 이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문6-4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기분이 우울해서 사람들과 1주일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있다
 문6-5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다
 문6-6번: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잔 경우가 있다

전 체

- 응답자들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6가지 문항 모두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저위험군(응답자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은 55.5%이며, 5가지 이상의 문항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응답한 초고위험군은 4.1%임.

8.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경험

1)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문7-1)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였던 경우가 있나요?

〈표57〉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있었다	(181)	36.3
없었다	(317)	63.7
합계	(498)	100.0

전 체

-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다는 응답자는 36.3%임.

응답자 특성별

-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권유했다는 응답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응답자가 정신건강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10명 중 97명(45.3%)만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을 권유했다고 응답함.

〈표58〉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치료 권유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 전 체 ■	(498)	36.3	63.7	100.0	
성별					
남자	(223)	29.4	70.6	100.0	
여자	(275)	41.9	58.1	100.0	
학력					
중졸 이하	(66)	26.4	73.6	100.0	
고졸	(127)	33.0	67.0	100.0	
대졸 이상	(306)	39.8	60.2	100.0	
경제 수준					
상	(32)	43.5	56.5	100.0	
중	(363)	35.9	64.1	100.0	
하	(103)	35.4	64.6	100.0	
정신건강 도움 요청 경험					
있다	(97)	45.3	54.7	100.0	
없다	(213)	27.5	72.5	100.0	

2)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추천 대상

문6-2)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중에 우울한 상태가 1주일 이상 계속되었던 경우에 누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표59〉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관련 도움 요청 추천 대상(복수응답)

구분	비율 (%)
정신과 의사	52.9
친구	20.8
가족	16.3
심리상담 전문가	12.7
성직자	12.4
동료	5.5
의사(정신과 의사 제외)	6.0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간호사/사회복지원	1.9
약사,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의료인	1.8
선생님	1.6
모름/무응답	1.0
합계	133.0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 체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으라고 추천한 대상으로는 정신과 의사, 친구, 가족, 심리상담 전문가 등의 순임.

3)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 여부

문7-3]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문6번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 중)응답자가 보시기에 가족 및 지인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60〉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으로 인식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349)	70.0
아니다	(142)	28.6
모름/무응답	(7)	1.4
합계	(498)	100.0

전 체

- 응답자의 가족 및 지인들 중에 문6-1번부터 문6-6번까지에서 1개 문항 이상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70.0%만이 주위 사람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4)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문7-4]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분은 현재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61〉 가족 및 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 중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86)	24.7
아니다	(237)	68.0
모름/무응답	(26)	7.3
합계	(349)	100.0

전 체

- 응답자가 생각할 때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 중에 24.7%만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5)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문7-5) (현재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전문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표62〉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받고 있는 치료 유형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상담치료	(12)	14.1
약물치료	(14)	16.1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58)	67.6
모름/무응답	(2)	2.3
합계	(86)	100.0

전 체

- 현재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상 문제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족 및 지인들이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음.

6)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받지 않는 이유

문7-6]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가족 및 지인들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63〉 가족 및 지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상담 및 치료 필요성 못 느낌	(101)	42.8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31)	12.7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장소 모름	(27)	11.4
상담 및 치료 시의 경제적 부담	(27)	11.4
기타	(39)	16.5
모름/무응답	(12)	5.2
합계	(237)	100.0

전 체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사람이 치료 받지 않는 이유가 상담 및 치료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12.7%임.

7) 가족 및 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권유 의향

문7-7)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그 분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표64〉 가족 및 지인에게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권유 의향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받을 의향이 있다	(205)	86.4
받을 의향이 없다	(30)	12.7
잘 모르겠다	(2)	0.9
합계	(237)	100.0

전 체

- 현재 가족 및 지인들 중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86.4%임.

9.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1)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문8) 선생님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습니까?(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원은 제외)

〈표65〉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알고 있다	(88)	8.8
모르고 있다	(912)	91.2
합계	(1000)	100.0

전 체

-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8%임.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고, 경제수준이 상이며,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자에서 높은 경향을 보임.
- 스트레스 체감수준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가 모두 저위험군인 A 유형이 지역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4%로 가장 높음.

〈표66〉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인지 여부

		(단 위 : %)		
		사 례 수 (명)	알 고 있 다	모 르 고 있 다
		(1000)	8.8	91.2
연 령 대				계
	10대 (15-19세)	(79)	8.7	91.3
	20대	(227)	4.4	95.6
	30대	(250)	8.9	91.1
	40대	(220)	10.9	89.1
	50대	(161)	10.1	89.9
	60대 (60-65세)	(63)	14.5	85.5
경 제 수 준				
	상	(60)	15.1 ↑	84.9
	중	(751)	8.1	91.9
	하	(189)	9.5	90.5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6가지 유형				
	A 유형	(92)	17.4 ↑	82.6
	B 유형	(515)	9.7	90.3
	C 유형	(118)	6.9	93.1
	D 유형	(158)	3.0	97.0
	E 유형	(93)	8.9	91.1
	F 유형	(23)	4.3	95.7
정신적 건강 상태				
	좋은 편	(653)	10.3 ↑	89.7
	보통	(306)	5.9	94.1
	좋은 편	(42)	7.2	92.8

조사결과표

조사설문지